

5. 최종지표 도출 및 개념 정립

본 연구에서는 최종적으로 융복합적 접근 방법을 고려한 지표를 선정하고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특히, 기존 선정하였던 지표와 법률적 측면에서 정의된 생태문화도시 구성요소, 중분류 지표를 생태문화도시의 정의와 인간의 삶의 질, 쾌적성 측면, 경관학적 측면, 도시의 현상학적 측면에서 개념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투안(Yi-fu Tuan)의 지리학은 ‘토포필리아TopoPhilia’라는 개념을 인간과 환경의 감각적/정서적인 것을 결부시켜 만든 새로운 용어로 정의하였다. 이는 고유성/개체성/역사성을 지니며 거주자의 의식과 경험을 반영하여 의미를 지니게 되는 장소(場所)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인간주의지리학을 ‘경험의 흐름 속에 자연과 인간의 관계, 사람들의 지리공간상에서의 행태, 공간과 장소에 대한 감정과 사고를 연구함으로써 인간세계를 이해하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정의했다.

렐프의 장소론을 기반으로 한 현대 가로 경관 장소성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에서는 장소로서의 도시공간의 의미를 재인식하고 도시가 단순히 물리적 대상물이 아닌 인간과 대상물간의 통합체라는 시각에서 경관 조성이 이루어져야만 인간과 환경과의 관계 수립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하였다. 에드워드 렐프는 생활 속의 공간 경험과 창조에 기반을 둔 ‘현상학적 장소론’을 정립시킴으로써 장소·사람·행위의 통일성을 살리며, 장소의 특수성과 일반성이 연계되어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또한 렐프는 장소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요소로 물리적 환경·인간활동·의미 등을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요소를 현상학적 접근 방법으로 현대 장소 연구에 적용하고자 하였다(박경운, 2010).

마이니그(Meinig, 1979)는 ‘바라보는 눈: 동일한 경관의 10 가지